

1)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국민정차」... 각급부서 생활

「국민정차」... 각급부서 생활
국민정차... 각급부서 생활... 국민정차... 각급부서 생활...

「국민정차」... 각급부서 생활
국민정차... 각급부서 생활... 국민정차... 각급부서 생활...

2)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2)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2)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3)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3)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3)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4)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4)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4)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5)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5)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5)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6)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6)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6)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7)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7)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7)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8)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8)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8)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9)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9)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9)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10)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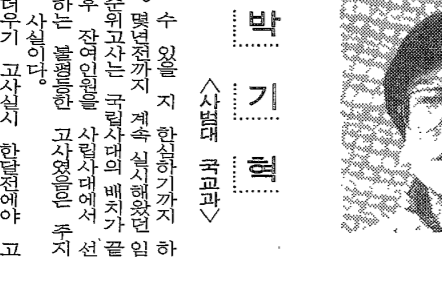
10)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10)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11)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11)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11)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박기철

인론탄압을 깨는 正論의 기수 기대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한겨레신문」 창간을 앞두고...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민주화가 과제...



한겨레신문

Advertisement for The Korea Herald language courses, including TOEFL and Korean Language classes.

Advertisement for Alliance Française French language courses, listing various levels and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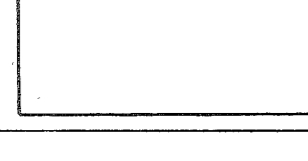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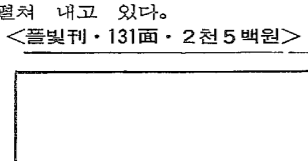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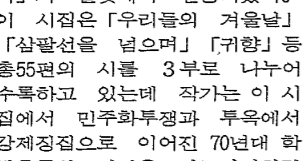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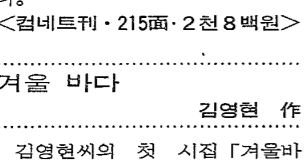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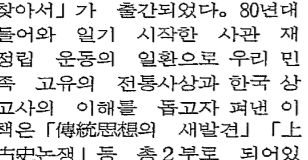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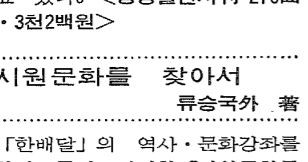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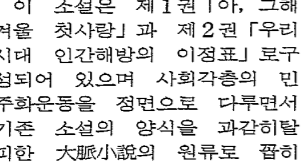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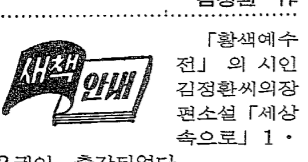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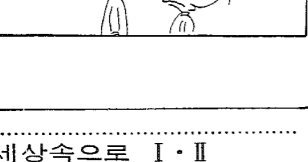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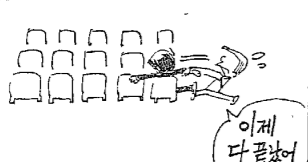
Advertisement for 시사영어학원의 자부심! (Pride of the English Language Institute), featuring TOEFL preparation courses.

Advertisement for 軍 (Army) and 行정병 (Administrative Soldier) recruitment,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全國大學新聞 (National University News) and 光 (Light) magazine, providing subscription details.

여로니모

오 황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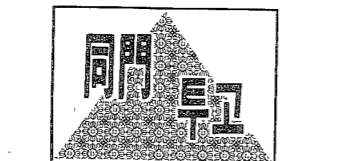


고독한 동물로 돌아가기 — 졸업생에게 주는 글

귀를 열고 들으면 언제나 같은 눈 속 가득히 푸른 바다를 열곤 하던 音樂도 없고, 그 음악이 잠들던 깊고 어두운 地下의 茶房도 없다. 푸른 바다의 날카롭게 솟아나는 물결이 빗어내

수렁하고 없었다. 이제는 어지간히도 자랐을 나의 친구는 언제나 1980년 관주에서의 모습 그대로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비틀리고 으깨어져 鮮血이 낭자한 시대의 한 모퉁이를 얻어 걸으면서 동양의 구성구석을 배회한다는 것은 악몽과 같이 지겹고 또 눈물나는 일이었지만 새



곤 하던 소름기도 우리를 품안에서 말라붙어 버렸다. 그러나 기인 옷자락을 끌며 깊고 깊은 흔적을 남기고 지나던 어느해 겨울의 햇빛 풍경들, 편발에 신은 꾸꾸요에 얹혀진 아픈 눈송이마타의 기억이 새롭다.

로이 얻은 고향사람들의 젖은 목소리가 물의자에 누워 잠든 나의 신을 속으로도 스며들었다.

이제 또 낯익은 얼굴들을 이혼당한 서울의 거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극방색 짐바거나 때로는 의류 대신 반짝이는 꾸꾸요를 먼저 보이며 저희들 먼저 다가올 것이다.

내려가는 속너들의 가늘고 긴 다리가 흐릿한 서울의 거리를 배경으로 나무기던 1986년의 늦은 겨울을 나는 애 그토록이나 심한 康惠를 느끼며 바쁜 걸음을 돌 아 집으로만 가고 싶었을까.

돌을 던질 수는 있었지만 영원한 분노로 스스로의 곁을 불사할 수 없었던 나의 그 때 마음을 나는 지금도 분명하게 그려 낼 수가 없다.

그들에게 할 말은 없다.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인가를 잃고 다시 지의 공자로 돌아오는 것이며 잠시 잊었던 고독한 동물성을 되찾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버려둘 뿐이다.

하곤한 얼굴로 남산에 가면 채하품하듯 흰 눈송이를 한두 점씩 던져 주던 2월의 하늘, 자유의 聲에는 벌써 몇차례인가의 웃음에 흘러내린 푸르고 붉은 물 색깔이 여러개의 느낌표 (!)를 예외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내 책상위에는 불확실한 내일 속으로 아련 타는, 연기처럼 흘러내릴 새 상품들의 프로젝트와 피가 흐르지는 않는 女人들의 고운 얼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에게 할 말은 없다.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인가를 잃고 다시 지의 공자로 돌아오는 것이며 잠시 잊었던 고독한 동물성을 되찾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버려둘 뿐이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지런내가 진동하는 화장실 결의 씨름장에 몇날 며칠이고 몰려박혀 내가 소주를 까던 볼날에도 몇몇 동지들은 바람 소리라 남산으로 올라가고 영영이 죽어 죽어 한 여자친구는 초록색 아우구자를 쓰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그때, 생각났다. 바로 그런 낯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 훗날의 눈물이 흐른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과 아빠의 영정을 받쳐든 어린 상주의 모습이. 그 어린 상주는 아마 지독한 개구장이였을 것 같은데, 그 때처럼 웃는 입은 눈빛에도 天使의 미소는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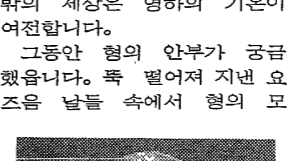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다만 그를 자신 순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날로써 모든 것은 말소되어 사라질 뿐이지만, 바로 그날로써 새로이 반짝이는 저의 이마를 바로 느끼게 되리라 한다.

만평·컷을 마치며...

D兄에게 령, 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캄바람 도로 선 시린별판의 한가운데로 차가운 계절이 횡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자 짧은 글을 형에게 드리는 시간에도 문밖의 세상은 영하의 기온이 여전한입니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정종기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살아야 할 만큼의 날들은 이제 다 지나버린 것을 알다. 형에 대한 걱정은 서운함을 몇마디 말로 대신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자전 한해, 꽤나 많은 일들이 생겨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들에 대한 저의 서투른 몸짓을 형은 많이도 너그럽이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87년, 多事多難했던 해. 이처럼 결박한 문으로 우리 시대 속에서 87년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자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일련의 무수한 사회적 사건들을 담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대화이로서의 해석과 수용을 우리 동대신문 紙面 속의 한 컷 만화로 담으려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옛날에 원승이가 여우에게 꽃신을 판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하지만, 결코 기괴한 것은 아니다. 치질만큼의 희생과 아픔은 모두 겪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우의 요구는 끝이 없다. 꽃신을 사주는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원승이가 여우에게 꽃신을 판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하지만, 결코 기괴한 것은 아니다. 치질만큼의 희생과 아픔은 모두 겪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우의 요구는 끝이 없다. 꽃신을 사주는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원승이가 여우에게 꽃신을 판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하지만, 결코 기괴한 것은 아니다. 치질만큼의 희생과 아픔은 모두 겪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우의 요구는 끝이 없다. 꽃신을 사주는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원승이가 여우에게 꽃신을 판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하지만, 결코 기괴한 것은 아니다. 치질만큼의 희생과 아픔은 모두 겪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우의 요구는 끝이 없다. 꽃신을 사주는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원승이가 여우에게 꽃신을 판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하지만, 결코 기괴한 것은 아니다. 치질만큼의 희생과 아픔은 모두 겪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우의 요구는 끝이 없다. 꽃신을 사주는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원승이가 여우에게 꽃신을 판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하지만, 결코 기괴한 것은 아니다. 치질만큼의 희생과 아픔은 모두 겪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우의 요구는 끝이 없다. 꽃신을 사주는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원승이가 여우에게 꽃신을 판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하지만, 결코 기괴한 것은 아니다. 치질만큼의 희생과 아픔은 모두 겪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우의 요구는 끝이 없다. 꽃신을 사주는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원승이가 여우에게 꽃신을 판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하지만, 결코 기괴한 것은 아니다. 치질만큼의 희생과 아픔은 모두 겪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우의 요구는 끝이 없다. 꽃신을 사주는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원승이가 여우에게 꽃신을 판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하지만, 결코 기괴한 것은 아니다. 치질만큼의 희생과 아픔은 모두 겪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우의 요구는 끝이 없다. 꽃신을 사주는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원승이가 여우에게 꽃신을 판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하지만, 결코 기괴한 것은 아니다. 치질만큼의 희생과 아픔은 모두 겪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우의 요구는 끝이 없다. 꽃신을 사주는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원승이가 여우에게 꽃신을 판다. 사람들은 기괴하다고 하지만, 결코 기괴한 것은 아니다. 치질만큼의 희생과 아픔은 모두 겪었다. 이제 겨우 살만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우의 요구는 끝이 없다. 꽃신을 사주는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모습들을 한창의 컷속에 담아 내려는 서투른 몸짓이었습니까.

투철한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에 젖는 "호소문" 압제의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가 살판치는 세상에서 식민지의 노예와 부자들의 하수인이 되길 거부하는 전사의 노예이며 투철한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에 뜨겁게 젖는 호소문이다.

이 뒤엎어 아메리카의 가슴스러움에 이빨을 갈며 부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그들의 뺨부스러기며 배를 채우고 타락한 안일에 잠겨 버리는 출몰에게 따뜻한 심장으로 호소하는 「나의할 나의피」는 지금 김남주시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임을 일깨운다.

단한 책상속에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무가 있는 곳에 용이있는 사람이 필요로하는 곳에 억압이 있는 곳에 작은 담담함으로 물음표(?)를 찍고 있다.

김남주詩集

김남주詩集

김남주詩集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자 우리 「자유」 「농부의 밭」 등 80여편의 시들이 압제에 쌓인 분노와 울분을 말하며 권력의 답을 향해 가슴으로 외치고 있다.

성취의 보람

자녀는 6월은 28일—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생애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준 결산이 내손으로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그일이 처음 주어졌을 때 막중한 임무 앞에 부담감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사한 지 2년만의 큰 프로젝트—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선발업체의 대경해서 이길 수 있는 신제품 개발'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신제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보람, 긍지, 그리고 무엇보다 성취감은 지금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의 의욕과 창의성을 성취의 보람으로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기사가 펼쳐져 있는 일터— 바로 코오롱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음의 패기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보람의 일터인 것입니다.

권영상

권영상

성취의 보람

코오롱은 보다 나은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보람, 성취의 보람, 갖기의 보람으로 실현하는 사명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취의 보람은 참여의 장(場)에서 최선을 다한 뒤 느끼는 긍지와 자신감을 말합니다. 한 젊은 인재가 펼치는 용기와 도전— 바로 코오롱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성취의 보람으로 맺어지는 일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또는 작은 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느끼는 성취감이 있는 일터— 젊은이라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터라 확신합니다. 코오롱은 바로,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인 도전의식을 가진 인재가 그들의 재능과 개성을 성취의 보람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인재를 위한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젊음의 도전과 창의성이 성취의 보람과 더불어 참여의 보람, 갖기의 보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상

권영상